

# 전주시민축구단, K4리그 홈 첫 경기 “화끈한 공격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

20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전주시민축구단과 격돌

전주시민축구단(감독 양영철, 이하 전주)이 홈 첫 경기를 갖는다.

전북 유일의 K4축구단인 전주가 20일 오후 2시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전주시민축구단과 경기를 치른다.

지난 6일 '2021 하나은행 FA컵' 1라운드에서 울산북구523FC를 9대 0으로 격파했다. 하지만 전주는 지난 13일 K4리그 개막 원정에서 인천남동에 0대 3으로 패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이에 이날 치러지는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다.

전주는 홈 경기인 만큼 공격적인 축구를 펼쳐 상대를 제압할 계획이다.

공격에서는 신화영과 이상현, 공민혁이 상대 골문을 조준하며, 중원에서는 김택균과 김민수, 김민서가 공·수 조율에 나선다.

수비에는 신동혁과 박종범, 지병우, 정성진이 상대 공격을 무력화 시키고, 골문은 조대영이 무실점으로 지킨다.

올해 K4리그에는 프로팀인 강원FC B팀과 신생팀 3팀 등 모두 16개 팀 참가한다.

K4리그는 16개 팀에는 전주시민축구단, 고양시민축구단, 서울노원유나이티드, 서울중랑축구단, 시흥시민축구단, 양평FC, 여주FC, 인천남동구민축구단, 전주시민축구단, 충주시민축구단, 포천시민축구단, 강원FC B팀, 평창유나이티드, 거제시민축구단, 당진시민축구단, 춘천시민축구단 등이다.

경기 방식은 홈앤드어웨이로 팀당 30경기를 치르며, 1위와 2위는 K3로 자동 승격된다.

3위와 4위는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쳐 K3리그 14위 팀과 승강결정전을 갖는다.

양영철 감독은 “지난해 K3리그에서 강등되면서 K4에서 경기를 치른다”면서 “올해 선수단 구성이 더욱더 젊어진 만큼 승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 감독은 “올해는 기동력 있는 빠른 축구를 선보이겠다”며 “홈 개막 경기인 만큼 공격 축구로 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선보이고 꼭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는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 유일의 K4축구단인 전주시민축구단이 20일 오후 2시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전주시민축구단과 경기를 치른다. 사진은 전주시민축구단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피해자측 “기성용측 악마의 편집... 언론플레이 중단하라”

전날 기성용측 입장에 반박 “법정서 모든 증거 제출”

기성용(FC서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측이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이 지속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18일 피해자 측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피해자 측은 “기성용 선수의 법률대리인이 법정에서의 재판이 아닌 ‘여론 재판’과 ‘언론 플레이’로 일관하며 본 사안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변호사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3월10일 MBC PD수첩을 통해 ‘기성용 선수 자신이 측근을 통해 과거 행위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며 사과외사를 표시하는 한편, 피해자를 회유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오보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은 아직까지도 ‘당장 증거를 내놓으라’라는 식의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 기성용 측 법률 대리인은 ‘증거를 공개하면 국민

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니, 증거를 법정 아닌 언론을 통해 공개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법정에서 법률에 따른 재판이 아닌 언론플레이와 여론재판으로 본 사건의 사건의 진실을 가리지는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은 변호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초등학교 시절 기성용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기성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 “철인3종 발전 위해 노력”

도체육회 전병은 감독, 청소년 국가대표 감독 발탁

전북체육회 실업팀인 철인3종 전병은 감독(36)이 청소년 국가대표 전담지도자(감독)로 발탁됐다.

전 감독은 오는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지휘봉을 잡고 선수들을 지도하게 된다.

전 감독은 “참신하고 도전적인 자세로 선수들을 대하려고 한다”며 “각종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철인3종의 매력을 널리 알



려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이 감소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책임감과 부담감이 크지만 철인3종 종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병은 감독은 복싱 국가대표 선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린시절부터 운동에 관심이 많았다. 초등학교 시절 수영 선수로 활동하다가 철인3종(트라이애슬론) 선수로 전향해 국가대표 선수로도 활약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은 복싱 국가대표 선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린시절부터 운동에 관심이 많았다. 초등학교 시절 수영 선수로 활동하다가 철인3종(트라이애슬론) 선수로 전향해 국가대표 선수로도 활약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 U+프로야구, 20일부터 2021 KBO 리그 시범경기 중계

통신사 관계없이 모바일 앱으로 누구나 시청 가능

LG유플러스는 20일부터 시작하는 KBO리그 시범경기를 자사의 야구 서비스 플랫폼 ‘U+프로야구’에서 중계한다고 밝혔다. 고객들은 모바일과 TV를 통해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시범 경기를 보다 실감나게 볼 수 있게 된다.

U+프로야구는 모바일 앱과 IPTV 서비스 U+tv를 통해 KBO 실시간 중계, 각 구단의 경기 일정, 주요 선수 정보, 인기 하이라이트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야구 플랫폼 서비스다. ▲KBO 경기 5개 실시간 동시 시청 ▲포지션별 영상 ▲주요장면 다시보기 ▲경기장 중継 ▲홈 밀착영상 등과 더불어 ‘방구석 응원’ 최적화 기능인 실시간 채팅을 즐길 수 있다.

U+프로야구에서는 오는 20일부터 30일(화)까지 11일간 진행되는 2021 KBO 리그 시범경기를 생중계한다. 이번 시범경기는 각 구단마다 10경기씩 총 50경기로 진행된다. 20일 첫 일정은 KT-두산(잠실), LG-한화(대전), KIA-삼성(대구), 키움-롯데(사직), SSG-NC(창원)로 시작한다.

시범경기 중계는 LG유플러스 이용자뿐만 아

니라 타사 고객도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 U+프로야구 앱은 가입 중인 통신사 관계없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윈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뉴시스

## 전북체육회, 실업팀 간담회

전북체육회는 18일 육상과 수영·양궁·카누·롤러·세팍타크로·철인3종·바이애슬론 등 8개 실업팀 지도자와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도핑 검사 예방 철저 ▲스포츠과학센터·선수트레이너(AT지도자) 적극 활용 ▲재능기부사업 참여 등이 안내됐다.

또한 이날 외부 전문강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학대·신고자교육 등도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기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